

# 비나는 사랑의 촛대는 믿음

10

2023년 10월 발행 Vol.7 템파 새빛교회 이야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 김섭리 목사의 신앙 칼럼 (8)

### 삶을 회복시키는 습관들(5): 세상을 향한 키스

두 남녀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작별 키스할까?”

여자는 대답 대신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키스해도 되겠어?”

여자는 눈을 감고 남자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자는, “너 병어리니?” 라고 말했고,

여자는 그제서야 말을 했습니다.

“넌 바보 천치니?”

키스해야 할 때 주저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해 왜 키스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16 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디모데후서 4:10 절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진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배운 것처럼, 세상을 친구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고 또 원수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 전하지 못하고 있을 것일까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키스하는 것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뜨겁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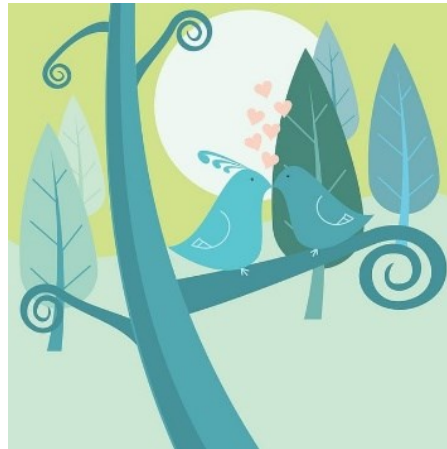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 왔는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해야 할 키스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키스입니다. 그것은 삶으로 보여 주는 행위입니다. 말뿐인 친절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 번의 위대한 키스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고대로부터 키스는 영적 결합을 표현할 때 키스를 은유로 사용했습니다. 중세 시대, 영주는 신하나 기사에게 키스함으로써 동맹을 맺었으며, 재산 이전을 합법화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키스라는 확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와 신랑의 키스하는 것은 원래 애정이 아닌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키스, 하나님과 인간의 키스에서는 영(프뉴마)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의 위대한 키스는 요한복음 20:20 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키스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키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두 팔을 벌려 안으시고 입 맞추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으시며 입 맞추고 계십니다. 그것도 늘,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키스를 세상을 향해 전해라. 너희 교회가 서 있는 Highland 길에 전해라, 탬파를 향해 키스하라!" 여러분, 이웃과 세상을 향해 키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곧

다가오는 Holy Win Festival 을 통해  
그 키스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37-39)**

## 교회 소식

### 여전도회 런치바자회

8월 20일 여전도회가 주최하는 런치바자회가 있었다. 이날 메뉴로는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어묵탕이 나왔다. 전날부터 분주히 재료들을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 여전도 회원들 모두 합심하여 김밥을 싸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였다. 이날 런치바자회로부터 발생한 순이익은 여전도회 결정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



### 최승하 아기 백일축하

9월 3일 친교실에서 5월 26일날 태어난 최예건 전도사/송지호 사모의 장남 최승하(Wesley)군의 백일을 맞이하여 많은 교인들이 이를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 새빛 PTA Fellowship

9월 10일 오후 4시에 친교실에서 PTA Fellowship 행사가 있었다. 이날 행사를 위하여 PTA 임원들과 학부모들은 맛있는 음식과 과일 디저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였다. 학부모들과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차려진 음식을 같이 먹으며 아이들의 주일학교 생활에 대하여 상담하는 시간을 보냈다.



## 주일학교 여름성경쓰기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은 여름방학 동안에 잠언 90 장부터 106 장까지 공책에 성경구절을 따라 적었다. 중고등부는 릴레이 형식으로 여름성경쓰기를 하였다. 이를 치하하여 9월 10일 친교실에서 2023년 주일학교 여름성경쓰기 시상식이 있었다.



## 2/4, 3/4 분기 새가족 환영회 / 추석맞이 송편

9 월 24 일 친교실에서 새가족 훈련을 마친 성도들의 환영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때마침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과 과일로 섬겼다. 이번에 총 18 명(14 가정)의 새성도들이 교회에 새로 등록하였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 탬파에서 가 볼만한 로컬 식당

Name	Price	Address
<b>Café Dufrain</b>	\$20-\$30	77 Harbour Post Dr. Tampa, FL 33602
<b>Charley's Steak House</b>	\$40-\$50	4444 W Cypress St. Tampa, FL 33607
<b>Cooper's Hawk</b>	\$20-\$30	4110 W Boy Scout Blve. Tampa, FL 33607
<b>DATZ Riverview</b>	\$20-\$30	6264 Winthrop Town Centre Ave, Riverview FL 33578
<b>Gaspar's Grotto</b>	\$20-\$30	1805 E 7thAve. Tampa, FL 33605
<b>La Terrazza Restaurant</b>	\$20-\$30	1729 E 7th Ave. Tampa, FL 33605
<b>Oak &amp; Ola</b>	\$20-\$30	1910 N Ola Ave. Tampa, FL 33602
<b>Oxford Exchange</b>	\$20-\$30	420 W Kennedy Blve. Tampa. FL 33606
<b>Salt Shack On The Bay</b>	\$20-\$30	5415 N Tyson Ave. Tampa, FL 33611



**Salt Shack On The Bay**



**DATZ Riverview**



**La Terrazza Restaurant**



**Oak & Ola**

## 영화와 영성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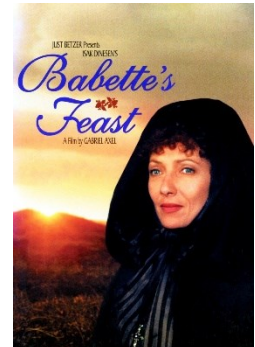
이전에 나는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나름 성경적인 시선에서 보려고 노력해왔다. 그렇게 하려면 신앙인으로 영화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영화의 구성 요소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와 영성을 시작하며 많은 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요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더욱 더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우선 매 강의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감격이 새로웠고 목사님께서 준비해주시는 강의 내용 뿐만 아니라 써 주신 강의 프린트의 큰 글귀가 요즘 점점 불편해지는 나의 시력으로부터 자유함과 목사님의 세심함 배려의 손길이 더해져 우리는 영화라는 문학의 한 장르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영화와 신학에 대한 연구와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영화가 개개인의 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영화는 스토리를 말하는데 파워풀하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창조물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환대와 용납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영화를 보면서 새롭게 보게 되는 나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전쟁 후 폐허가 된 도시 안에서 남은 가족이 함께 소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괴물'에서는 사회에서 별 볼일 없는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모을 때 그 두려운 괴물을 물리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이키루', '디파쳐스'에서는 일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행복을 새롭게 주어진 소명 앞에 그 누가 뭐라

하여도 인내하며 묵묵히 해 나가며 그 주변인들을 시원케 해주고, 위로자로서 나가는 작은 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헬프'에서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에서의 두려움을 큰 용기로 바꾼 그녀들의 경건한 발걸음이... '플레이스 인 더 하트'에서는 남편을 잃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여주인공이 여러 가지 사연은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면서 그 어려운 역경을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진심이 전해지면서 진정한 가족으로 하나 되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감격을... 나에게 가장 많은 감동을 준 영화인 '바베트의 만찬'에서는 바베트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아 상처 있고 메마른 영혼들에게 정성을 쏟으며 대접하는 식탁의 자리가 서로에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 새빛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게 하신다는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로렌스 장군이 연설한 내용으로 영화의 의미를 다시 되새긴다.



바베트의 만찬

(1996 년)

“우리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 그때에 실패할까 봐 두렵지만 눈이 뜨이는 때가 온다.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의 확신과 감사로써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 은혜에는 조건이 없다.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이 부여되고 우리가 거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버렸던 것도 다시 얻을 수 있다. 자비와 진실은 함께한다. 정의와 축복은 하나이다.”

-이 향림 집사

## 교회 사역팀 소개

2023년 중점사역인 3개 사역원에 속한 20개 사역팀에 대한 소개입니다.

새빛교회 팀사역은 예수님과 사도바울의 팀사역을 그 모델로 삼습니다. 팀사역은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같은 비전과 핵심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 새빛교회 홀리윈팀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3 홀리윈팀을 맡은 김명희 팀장입니다.

새빛교회의 홀리윈 행사는 매년 할로윈과 같은 날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할로윈은 그야말로 세상속의 거대한 문화로 자리 잡은 축제 와도 같은 날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제각기 코스튬을 입고 길거리로 나와 즐기는 문화로, 특별히 아이들은 길거리로 나오면 맘껏 캔디도 받고 먹을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할로윈은 기독교 적인 여러 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교회는 많은 고민이 있어왔습니다. 이날을 하나의 세상문화로 치부하고 무시하거나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교회만의 또 다른 할로윈 축제를 열어왔습니다.

새빛교회도 할로윈날이 되면 아이들은 적당한 코스튬을 입고 게임을 즐기고 맘껏 캔디도 즐겼습니다. 아이들을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대신, 우리만의 할로윈을 즐기며 넘기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담임목사이신 김섭리 목사님의 목회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에 걸맞게 개인 성도는 물론

교회 전체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작년 오랜만에 새빛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웃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할로윈날 교회가 먼저 이웃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과 세상과 분리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임을, 섬김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홀리원팀은 노력하고자 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의 회복,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삶, 땅 끝까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새빛교회의 홀리원팀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2023 년 홀리원 팀장 김명희 외 14 명의 팀원들**

## 성도칼럼 書評: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NC 의 산야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는 운전엔 잔재미를 더했고,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을 마다하고 차창을 열고 가을을 즐겼다. 보송하고 청량한 공기가 두 뺨을 두드리니 이내 목덜미로 미끄러져 갔다. 울창한 가로수 사이로 아침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주일아침이었고 나는 마음의 예루살렘, 옛 목사님을 뵈러 가는 길에 주책없이 설레는 참이었다.

교회를 들어서며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잠시 허둥거린 것을 빼고는 모든 것이 한결같았다. 기도도 찬양도 설교도 성찬도 이질감 없이 평안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담임목사님 내외가 내 뒤에 나란히 앉아 계신다는 것. 안식년을 보내는 중이셨다. 대신 단상에 서신 부목사님의 설교는 거침이 없는 단단함으로 잠든 영혼을 두드리 깨웠고,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게 된 여러 교역자 사모님들은 하나같이 따스했다. 바로 친정에 온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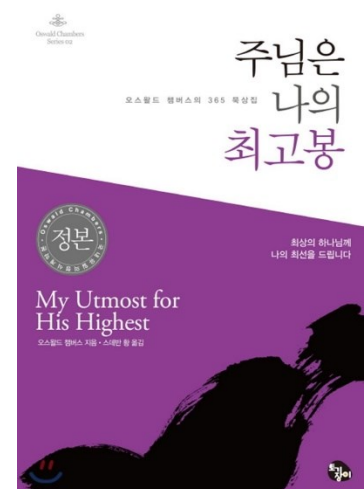
20년 전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목사님의 믿음의 정체가 궁금해서 일대일 제자 양육반에 끼워 달라고 졸랐고, 반년이란 세월동안 매주 그 덕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며 예수를 영접했고 또 QT 를 배웠다. 육신의 허기짐을 채우듯 말씀의 양식을 꼭꼭 씹어 소화시키는 법을 배운 것이 바로 그 때였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동그란 식탁에는 매일같이 군식구들이 있었다. 누구를 마주쳐도 이상하지 않도록 열린 그 공간에는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이 가장 먼저 초대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특별한 반찬 없이 그야말로 숟가락만 몇 개 더 놓은 소박한 식탁,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것은 천국의 잔치였다.

성경을 펼쳐 들기도 버겁도록 어려운 고난이 이후로 순하게 닦쳤지만, 회복은 늘 말씀을 통해 이뤄졌다. 매일 QT 를 통해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승리의 약속을 때로는 질책하기도 하시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었다. 그렇게 초신자 시절부터 꾸준히 적어 왔던 묵상과 간증의 기록은 이제 책을 내도 될 만큼 방대한 분량으로 쌓여 있다. 나 같은 졸필에게도 그런 기적을 보이신 주님, 나의 동행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QT 노트가 아닌가 싶다. 믿음 안에서 먼저 고민해보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간증들이 빼곡하다. 나보다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묵상은 깊고도 넓다. 물론 그의 사후에 글을 모아 훌륭히 편집해 낸 그 아내의 공도 크다. 기독교 서적 중 오랜 고전 명작으로 손꼽히는 그의 묵상집. 이미 읽어본 사람도 많을 테나, 푸르른 젊은 날에 얻었던 감동과 귀밀머리 허연 오늘날의 느낌이 사뭇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 365 개의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루 하나씩 읽기에는 그리 부담도 없으니 아마 한 번쯤 다시 읽어 보는 것도 괜찮을 성싶다.

## -최 은영 집사

원 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출판사: 토기장이  
지은이: 오스왈드 챔저스 저자  
옮긴이: 스테반 황  
출판일: 2009 년 3 월 25 일  
쪽 수: 416 쪽  
구입처: 교보문고나 Yes24 에서 eBook 가능  
(교회 도서부에서 대여가능)





## 『빛나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김섭리 목사 발행처 탬파새빛교회

편집장 박혜영 집사 편집인 곽봉선 집사 • 안지연 자매 • 조현숙 집사

**Address** 6018 N Highland Ave, Tampa, FL 33604

**Website** <http://nlct.org> **Tel:** (813)239-0213

